

“노쿱킹은 쳐다보지도 않았습시다”

독일 기계 이노클린으로 교체한 뉴욕 Joe's Cleaners 알렉스 김 사장

요즘엔 장비를 구입하려 할 때 솔벤트 선택으로 고민하는 경우는 드물다. 새 장비를 장만하면서 펄크를 선택하는 경우는 이제 없기 때문이다. 대신 전통적인 구조를 가진 장비 그리고 노쿱킹 방식의 경제형 장비를 놓고 고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퀄리티에 대한 확실한 의지가 있다면 그 선택은 간단하다. 뉴욕주 웨스트베리에서 Joe's Cleaners를 운영하고 있는 알렉스 김 사장은 지난 여름 새 드라이클리닝 머신을 선택할 때 “노쿱킹 머신은 쳐다보지도 않았다”고 잘라 말한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경쟁 차별화를 위해 이노클린 선택

알렉스 김 사장은 10년 전 미국에 온 후 식당이다 영업직이다 다양한 일을 하다가 세탁소에서 몇 년 일한 인연으로 3년 전 조스 클리너를 개업했다. 그리고 이 클리너 인수 당시 최고 퀄리티라고 인정받는 독일제 하이드로카본 장비가 설치돼 있었다는 사실이 결정에 큰 도움이 됐다.

“이 세상에 완벽한 장비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우수한 장비를 선택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지요. 처음 내 가게를 장만하는 건데 싸구려 기계는 싫었습니다.”

김 사장이 최고급 독일제 장비를 교체하려 했던 이유는 관리가 힘들어 연식이 오래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기 힘들어서였다. 더군다나 솔벤트에 악취문제도 생기면서 바로 장비교체를 결심했다.

김 사장은 새 장비를 고르면서 앞서 언급했듯 노쿱킹 방식의 경제형 모델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사용하고 있던 독일 장비 수준의 기계만 검토했고 결국 이노클린 60 파운드



알렉스 김 사장(왼쪽)은 이노클린 머신의 최고급 사양 그리고 놀랍게 경쟁적인 가격에 반했다. 오른쪽은 KTE 본사 김윤학 엔지니어.

모델을 선택했다. 그가 이노클린에 반한 이유는 간단하다.

▲ 사용자 위주의 프로그램 - 8.4 인치 대형 터치스크린으로 원-터치 조작이 무엇보다 그를 사로잡았고, 사용 메뉴의 다양한 언어(한글, 영어, 스페니쉬, 중국어) 선택 옵션 그리고 무엇보다 사용하기 편한 프로그램이 그를 사로잡았다.

▲ 편리한 자동 기능 - 대체 솔벤트를 사용할 때 기계의 정비관리가 매우 중요한데 이노클린은 이런 기능들을 원-터치로 해결한다. “청소는 기계가 알아서 하고 저는 필터 먼지만 털어주는 정도니 편해도 너무 편한 것 아닙니까?”

▲ 장비 성능 - 김 사장은 드라이클리닝 머신을 교체하면서 솔벤트도 시스템 K4로 바꿨다. 그리고 시스템 K4 용으로 성능이 강화된 모델을 따로 판매하는 다른 메이커들과 달리 이노클린은 따로 K4 모델이 없을 만큼 기본 성능이 강력하다는 사실에 놀랐다. “최저기준에 맞춰 만드는 다른



조스 클리너는 타운에서 유일하게 오개닉 클리닝을 하고 있다.



이노클린을 놓고나서 퀄리티의 차이를 손님들이 먼저 말하고 있다.

메이커들과 달리 이노클린은 최고기준에 맞춘다는 걸 말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는 세척력이 약한 하이드로카본 솔벤트를 사용하면서 항상 스팟팅 작업을 먼저 했다. 하지만 지금은 일단 “검사해 다 때려 넣고” 빨면 60 파운드 한 로드에서 손 볼게 6개 정도 나온다. 이걸 대개 불거나 물빨래도 다시 처리한다. 시스템 K4 솔벤트는 기름때와 수용성 때를 다 녹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예전에는 때가 안 나가고 생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펄크 썼을 때보다 일이 더 편하다.

“메이드 인 코리아” 자랑스럽습니다

김 사장이 다니는 교회에는 세탁소 하는 사람이 백 명 가까이 된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주일마다 세탁소 얘기가 빠질 수 없다. 그리고 세탁소 얘기에서 클리닝 머신 얘기가 빠질 수 없다.

“노룩킹 머신 쓰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저런 얘기 해보면 후회하는 분들이 많더군요. 작업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염색이 한 번 빠지면 노룩킹은 필터를 다 갈아야 하는데 돈도 돈이고 그게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편해 좋다고 하다가 한 방에 갑니다.”

김 사장이 한국산 이노클린을 장만한다고 했을 때 사실 말리는 교우들도 많았다. 문 닫고 사라지면 어떻게 하나?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겠냐? 품질을 믿을 수 있냐? 사람들이 겁을 많이 줬다.

“하지만 한국의 본사인 KTE는 세탁산업의 어떤 회사보다 큰 규모를 가진 선박용 전기 및 제어장비 생산업체입니다. 기술력이야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지난 13년간 막대한 손해에도 불구하고 곳곳하게 고객 옆을 지킨 회사입니다. 한국 상공부가 선정한 300대 우수 기업을 못 믿으면 누굴 믿겠습니까?”

김 사장은 최고급 독일 기계를 이노클린으로 교체한 후 기계를 쓰면 쓸수록 “메이드 인 코리아”에 대한 자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 기계 사지 말라던 사람들도 와서 보고는 다들 감탄하고 돌아간다.

“미안한 얘기지만 중국산 싸구려 기계가 어디 감히 한국 제품에 들이댁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김 사장 스토어는 차로 10분 거리에 더 큰 경쟁업소가 좌우로 하나씩 자리 잡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김 사장엔 퀄리티가 무엇보다 중요한 경쟁 수단이다.

“전 펄크로 빠는 경쟁업소들보다 빨래를 더 잘하려고 이노클린을 선택한 겁니다. 손님들도 차이를 느끼고 물어봅니다. 세탁 품질이 더 좋으면 고객은 당연히 늘어나겠죠? 이제 돈 버는 일만 남았습니다. 하하.”

글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한국본사(주)KTE +82-51- 600-3547 / innoclean@kte.co.kr; 뉴저지 지사 (201) 288-5577; 또는 Joe's Cleaners (347) 954-8025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